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 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대학교 동창회관내  
 電 話：702-4301

## 所得없어도 대체로 보람과 矜持 느낀다

— 篤林家 —

山林廳은 지난 第43回 식목일에 즈음하여 전국 篤林家 492名에게 山林廳長 격려서한과 함께 設問書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응답 회신한 독립가는 20%도 못되는 96명에 불과하다. 정확한 理由야 알길이 없지만 귀찮아서, 응답해 봤자 등 무관심하고 否定的인 측면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편집자만의 기우였으면 좋으련만, 어쨌든 회신 접수된 것만을 산림청에서 정리한것을 그대로 옮긴다. — 편집자 —

<問 1> 篤林家로써 보람과 矜持를 느끼고 있는지?

느끼고 있다면 어떤 경우 인지?

— 總 응답자 96명중

- 篤林家로써 보람과 矜持를 느낌 — 81명 (85%)
  - 自律的 施業保障 — 1명
  - 篤林家 優先 支援 — 9명
  - 山林 經營 目標 達成 — 7명
  - 個人所得과 國家經濟寄與 等 — 64명
- 보람과 矜持와 反對되는 答辯 — 9명
  - 篤林家 支援 불만 — 4명
  - 施策, 制度不合理 — 5명
- 答辯하지 않음 — 6명

<問 2> 篤林家에게 주는 支援制度는 平素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惠澤을 받은적이 있는지?

— 額 응답자 96명중

-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 다 알고 있다. — 81명 (84%)
  - 일부 알고 있다. — 9명 (10%)
  - 모르고 있다. — 6명 (6%)

- 惠澤을 받은적이 있는지?
  - 充分히 받음 - 14 명 ( 15 % )
  - 일부 받음 - 37 명 ( 38 % )
  - 못 받음 - 45 명 ( 47 % )
    - 몰라서 - 6 명
    - 申請하지 않아서 - 14 명
    - 不合理 하여 - 21 명
    - 앞으로 申請 - 1 명
    - 該當 없어서 - 3 명

〈問3〉 支援事項이 洽足하다고 생각하는지?  
未洽하다면 어느事項이라 생각되는지?

— 總 응답자 96 名中

- 支援事項洽足 - 14 명 ( 15 % )
- 未洽하다고 생각 - 75 명 ( 78 % )
  - 山林開發基金融資 - 21 명  
( 利率引下, 申請節次簡素化, 資金 및 信用貸出 擴大 等 )
  - 政府支援擴大 - 20 명  
( 補助, 稅制 等 )
  - 營林計劃制度 - 8 명  
( 營林計劃 作成節次 簡素化, 營林計劃 認可地 自律施業, 作成費用의 國家 負擔 )
  - 伐採制度 - 7 명  
( 무속簡伐은 伐採量의 拘애없이 配定, 篤林家 伐採量 優先配定 等 )
  - 其他 - 19 명  
( 一線公務員教育, 篤林家 인식부족 및 무관심, 山林施策 弘報, 各種規制法令改定 等 )
- 答辯하지 않음 - 7 명 ( 7 % )

〈問4〉 繼續 所有 山林을 經營할 意思가 있는지?

— 總 응답자 96 名中

- 經營意思에 관하여는?
  - 繼續所有經營 - 84 명 ( 88 % )
  - 意思 없음 - 7 명 ( 7 % )
  - 無 答 - 5 명 ( 5 % )
- 子女에게 後繼는?
  - 後 繼 - 59 명 ( 61 % )

- 意 思 없 음            - 13명 ( 14 % )
- 無                    答            - 17명 ( 18 % )
- 未                    定            - 7명 ( 7 % )

\* 繼續經營 및 後繼 不可能 事由

- 收益性이 없음
- 過重한 稅金으로 자손들에게 부채만 相續시키는 結果
- 災害 報償制度 없음
- 規制爲主의 伐採制度에 懷疑的

<問 5 > 山林行政에 優先 중점을 두어야 할 事項은 ?

- 優先 중점을 두어야 할 事項 順位

- |               |            |
|---------------|------------|
| 1) 木材價格의 適正維持 | 2) 稅制 惠澤   |
| 3) 補助, 融資의 擴大 | 4) 伐採의 自律化 |
| 5) 技 術 指 導    | 6) 協業經營 擴大 |
| 6) 其 他        |            |

( 各種規制緩和, 不動產투기 억제對策, 篤林家의 制度的 支援, 林間學校設置, 育林技術弘報, 被害報償制度, 公務員의 資質 및 자세改善 等 )

○ 응답자별 順位決定 집계표

區 分	1	2	3	4	5	6	7
○ 木材價格 適正維持	35	12	9	10	10	1	1
○ 補 助 融 資 擴 大	21	18	25	10	3	-	-
○ 技 術 指 導	4	2	8	9	20	10	-
○ 稅 制 惠 澤	16	27	18	11	3	3	-
○ 伐 採 의 自 律 化	13	21	13	14	7	7	-
○ 協 業 經 營 擴 大	3	3	2	9	9	15	2
○ 其 他	5	-	-	2	3	6	5

<問 6 > 其他 林業發展에 緊要하다고 생각되는 事項은 ?

- 政府支援擴大
  - 育林事業 置重 集中支援
  - 林道施設費 全額補助 ( 80 % → 100 % )
- 山林開發基金 融資條件 및 制度改善
  - 利率引下 ( 5.5 % → 3 % )
  - 現實勞賃을 勘案한 融資基準 策定 - 實費融資가 되지못함.
  - 融資節次의 簡素化
  - 國立公園 編入地 擔保對象 除外는 不合理

- 營林計劃 및 伐採制度 改善
  - 營林計劃 認可地는 申告 等の 節次없이 自律的으로 施業할 수 있도록 改善
  - 撫育間伐은 伐採計劃量에 拘애없이 自律的으로 伐採할 수 있도록 許容
  - 營林計劃作成은 복잡하며 일반 山主作成은 事實上 不可能함으로 쉽게 作成할 수 있도록 改善 또는 國家에서 作成해주는 方案檢討
  - 公務員 木材生産檢印 타기 出場時 交通便益 제공의 되 등의 不條理 根絶조치
- 施策改善事項
  - 林業稅制制度 改善 및 山林被害補償制度 施行
  - 國內 木材價格 適正維持 對策講究
    - 外材導入억제
    - 유통構造改善(直去來)等
  - 山林事業의 省力化 時急
    - 道具開發
    - 裝備購入時 免稅
  - 不要存 國有林을 分收林으로 篤林家에게 위탁開發
  - 山林組合 運營改善 關係
    - 農協, 축협과 같은 水準으로 育成
    - 山林組合을 廢止하고 山林經營者 協會와 같이 山主들로 構成된 協會構成
    - 山林組合長은 篤林家中에서 選定
  - 山地利用區分 調查가 現地와 不합되지 않아 山林經營에 애로
  - 造林費 豫置制廢止하고 罰則強化
  - 名目뿐인 篤林家 育成制度의 活性化
  - 各種支援 事項에 대한 迅速한 情報제공
- 其他 事項
  - 山林組織強化 - 道山林局 復活, 山林部 승격
  - 山林貢獻者 褒賞擴大
  - 一線公務員 資質改善
    - 山林施策이 일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山主를 돕는다는 자세가 缺如
  - 山林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弘報活動展開

외용진통, 소염제  
바이겔 크림



“Indomethacin 의 강력한 Prostaglandin 합성 억제작용으로 인한 소염·진통 효과는 Piroxicam 이나 Naproxen 제제와 동등하거나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草堂藥品工業株式會社

본사: 서울·종로구 종로5가 36-1 전화: 741-1540, 743-6161/2  
 출장소: 부산 (051) 66-3747 대전 (042) 253-8580  
 대구 (053) 756-1833 전주 (0652) 75-8064  
 마산 (0551) 43-1923 광주 (062) 232-0701  
 원주 (0371) 42-8204

## 山林組合法改正公聽會를 보고

林友會員 李 在 石

요사이 民主化 바람이 하나의 時流가 되어 非民主的인 法은 고쳐야 한다고 해서 우리山林組合法도 改正作業에 착수를 하고 지난 6月10日 山林組合法改正 公聽會가 있었다.

筆者도 發表討論者의 한사람으로 本 公聽會에 參席한 일이 있어 그때 느낀 소감 몇가지를 이곳에 적어 우리 林業人들과 意見 交換을 해보자는데 그 뜻이 있다.

솔직히 말을 해서 우리 現行 山林組合은 이름 自体는 組合을 표방하지만 그 內容은 組合도 아니요 또 政府代行機關도 아니요 한마디로 要約하면 準山林行政機關의 뜻이 크게 내포되어 있고 또 그러한 機能을 해 온것으로서 그 体制의 性格이 다른 組合法에서 그 例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性格을 지니고 있다. 이 体制上의 性格의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建國 40년이 넘도록 다른 其他組合과를 比較할 때 發展이 늦은 原因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야 하겠다.

이와 같이 큰 問題點이 있는 法을 大手術하거나 法을 改正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法을 만들어야할 意味가 주어진 山林組合法 改正 公聽會라면 적어도 다음 몇가지 事項에 留意를 했었어야 좋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것은 먼저 法改正案의 作成主体가 누구냐 하는 것이 重要하다.

現山林組合을 運營하는 사람들이 이 法案改正의 骨格을 잡으면 지금까지 準山林行政機關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主觀이 介入되어 우선 客觀性을 잃은 法案이 나오기 마련임으로 組合理論을 아는 機關에 用役을 주는 것이 마땅했다.

그다음에 問題가 되는것은 公聽會 發表 討論者는 林學이나 自然科學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組合理論이라는 것이 自由經濟體制下에서 小資本家들이 모여서 大資本의 횡포에 對抗하는 原理일진대 經濟 또는 組合理論을 아는 분들이어야 했다는 點이다.

그리고 公聽會는 公聽會 主体가 選定한 몇사람의 意見을 듣고 말았다.

어느 法이고 간에 利害當事者가 있다. 他法을 排除하여 權益을 侵害하는 修項까지 있는 法案을 利害當事者의 參席이 되지 않은채 청중이 없는 公聽會는 公聽會로서 意味를 상실한다.

그래서 청중의 意見도 들어야 했고 廣範하게 收檢하여야 했다.

모든것은 簡單하게 하고 일은 能率的으로 處理할 것이 따로 있지 國民의 權利義務를 規定한 法일진대 多少 時間을 要하고 귀찮더라도 위에서 指摘한 몇가지 事項을 參考하여 다시한

번 公聽會를 갖기를 希望한다.

그 다음은 筆者가 發表討論者로서 公聽會에서 提示했던 意見을 이곳에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法改正案을 보고 總括的인 意見은 民主化라고 하니가 任職員의 任命制를 選舉制로 바꾼 以外 別다른 큰 改正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勿論 組合의 民主化 要因中에 選舉로서 任職員을 選出하는 것은 原則의 하나다. 그러나 組合의 母體 또는 主人은 組合員인 것이다.

民主的인 組合法改正에 있어 組合員의 加入脫退의 自由가 없이 強制로 組合員이 되어야 하고 自己意見에 反하는 組合員이 되어 選舉를 한들 그 選舉의 意味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평안감사도 제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는데 加入脫退의 自由가 없는것은 非民主性의 代表的인 例다.

또 이것보다 더 重要한 것은 組合員이 누가 되느냐 하는 問題다.

이것은 말할것도 없이 組合區域內에 組合에 加入을 원하는 山主라야 한다.

부락山林契가 解放后에 벌거벗은 山에 勞力動員을 하여 綠化를 하고 산불을 防除하고 송충이를 잡고 國民植樹運動에 參與한 功積을 이곳에서 굳이 낮게 評價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제 綠化단계는 넘어섰고 時代가 많이 변했다.

莫然한 愛林思提, 愛國心에 呼所할 時代는 지나서 山林契간판을 내린 山林契가 많고 山林契간판을 붙여 놓았다해도 有名 無實하다.

옛날 山林法이나 山林組合法에서 山林契員의 法的地位를 明確히 規定하지 못함으로서 훌륭한 山林契를 組合員으로 삼았다는것은 옛날 생각이다.

協業山林契도 마찬가지다 當局은 協業體의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山林도 이 協業體를 따라 오도록 誘導하고 있는데 이것도 協業山林契 自体가 組合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좋거나 싫거나 山主가 組合員이어야 한다는 基本原理는 資本主義社會下의 經濟體制上 異論의 餘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組合員은 出資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무 會議를 가봐도 5分마다 한번씩 돈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돈도 國庫金을 달라고 한다.

勿論 政府는 劣勢產業을 補強하는 뜻에서 最大限의 補助는 必要하지만 組合員이 出資하는 것을 基本으로 삼아야 한다. 出資도 하지 않고 組合을 운영하려고 하는 着想自体가 健全하지 못하다. 반드시 出資規定이 必要한 것이다. 그리고 組合員에게는 配當을 해야 한다.

配當이 없는 組合은 組合의 存在價値가 없는 것이다.

出資와 配當 이것이 組合의 生命일진대 이런 內容이 없는것은 組合法의 흠중에 큰 흠이다.

다음은 山林組合의 業務이다.

山林組合의 業務는 組合員을 爲한 業務에 局限해야 한다.

組合員을 爲한 購買事業, 共同施設利用, 信用, 共濟教育業務에 限하여 한다.

山林組合業務를 보다 쉽게 풀이하면 組合員들이 必要한 資材를 共同으로 산값에 購入配分하고 林産物販賣窓口를 一元化해서 組合員 各自가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주고 林道, 林産物集荷場을 共同施設하여 利用케 하고 組合員의 金融便利를 圖謀하며 산불등 災害에 對한 共濟事業을 추진하고 教育을 하는等 組合員을 爲한 일을 하라는 것이다.

或者는 山林組合도 營利事業을 해야 한다고 한다.

營利事業과 經濟事業은 區分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山林組合과 類似한 農協 水協 畜協等이 있는데 이들도 營利事業을 하고 있다 하지만 組合員을 爲한 購販等 經濟事業이지 이들이 組合員과 競爭關係에 있는 營利事業을 하는것은 없다.

예를 들면 山林組合法의 業務에 造景事業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建設業法에 依하여 造景免許를 가지고 나라에 稅金을 내고 專門業으로 하는 사람들과 相衡이 되어 造景業界에서는 非營利公法人이 稅金을 내고 業을 하는 造景事業者와 競爭關係에 놓는다는 것은 公正去來에도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고 公法人의 營利事業行爲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데에 이번 山林組合法 改正案을 보면 山林組合法이 建設業法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또 養苗도 마찬가지다.

山林法에 依하여 山林種苗販賣業 登錄을 한 사람이 全國的으로 近 700名에 가깝다. 그것도 平生을 通하여 生業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養苗業者라는 것은 大部分이 山林組合員이다.

組合員과 組合이 같은 營利事業을 가지고 競爭을 해야하는 것이다.

組合員을 위해 일해야 할 組合이 組合員과 營利事業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모순된 일이지만 公法人인 山林組合이 造景이다 養苗다 해서 營利事業에 置重하면 組合이 組合 本來의 業務를 할 時間이 없고 組合員을 위한 일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山林組合은 組合員을 위한 經營事業 以外 營利事業을 해서는 안됨으로 이런 營利事業은 山林組合 業務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結論的으로 이야기 하고저 하는것은 現 山林組合法의 体制의 性格이다.

이것은 組合法도 아니요 政府代行機關도 아니요 準行政機構運營에 關한 規定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이 三元的 意味를 가지고 있으면서 實은 하나도 옳은 結實을 못가지고 오는 制度下에서 組合員은 차치하고 組合 自体業務에 置重하다보면 이것이 組合을 위한 法이지 組

合員을 爲한 法이 아님으로 그 生命이 오래 갈 수가 없다.

따라서 세마리의 토끼를 쫓다보면 한마리의 토끼도 못잡는 結論을 가지고 온다.

故로 40年만에 온 이 모처럼의 기회에 現行 山林組合法을 政府代行業務를 관장하는 山林 開發公社法과 純粹한 山林組合法으로 二分하여 法改正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民主化 바람이 불어 이에 발을 맞추어 法을 改正하라하니가 選舉만 하면 民主化라고 생 각하면 큰 잘못이다.

民主化 法改正의 本意義는 組合의 主人인 組合員이 主人이 되는, 즉 組合員을 위한 法이 라야지 組合自体를 爲한 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樹種別 收益性分析表 (헥타당)

1987 .12. 현재

구분	수 종	별 기 령 (년)	재 적 (㎡)	조 수 익 (천원)	생 산 비 (천원)	순 수 익 (천원)	수 익 율 (%)
장 기 수	잣 나 무	40	264 (8,133 kg)	22,964	5,614	17,350	9.4
	낙엽송	30	259	7,362	1,820	5,542	6.7
	젓 나 무	60	290	8,101	2,759	5,342	2.8
	강 송	40	289	7,987	1,567	6,420	8.2
	해 송	40	255	7,316	1,567	5,749	7.0
	리기레다	30	264	6,545	1,802	4,743	6.4
	소 나 무						
	삼 나 무	30	227	7,238	1,928	5,310	6.5
	편 백	30	207	6,804	1,934	4,870	6.3
	상수리나무	30	120	2,957	1,047	1,910	6.0
속 성 수	오동나무	20	176	13,484	4,450	9,034	10.6
	이태리	15	213	7,710	2,315	5,395	15.3
	포플라 현사시	20	175	6,281	1,963	4,317	9.2
유 실 수	밤 나 무	25	33,093 kg	21,974	16,960	5,014	7.8
	호도나무	50	32,023 kg (30 ㎡)	115,775	24,188	91,587	20.9



## FAO 第 9 次 林業委員會 參加 및 핀란드 林業視察을 마치고

崔 玟 休

(山林廳 技術指導課長)

國諸食糧農業機構 林業委員會는 世界 모든 會員國 代表들이 모여 林業協力에 관한 事項을 協議하기 위하여 2年마다 한번씩 로마에 있는 FAO 本部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늘 이 委員會에 代表를 파견하여 임업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특히 이번 5月 9日부터 5月 13日까지 열렸던 9次委員會에는 鄭琛鎭 山林廳長님 (當時)을 首席代表로한 3人의 代表團 (駐伊太利 大使館 愼久範 羅務官 및 筆者)을 構成 會議에 參席하였다.

今般 林業委員會에는 約 90 餘國의 代表 300 餘名이 參席하였으며, 이 中에는 北韓代表 國도 포함되었다.

이번 9次 林業委員會의 政策議題는 네가지였는데 첫째는 野生動物이 食糧資源과 地域經濟發展에 어떻게 寄與할 것인가, 둘째는 山林資源을 基礎로 한 小規模 企業體의 開發問題, 셋째는 山林資源과 그 利用者間의 諸般問題 넷째는 熱帶林業 活動計劃에 있어서 政策課題 批判 등이었다.

우리 代表國은 各議題마다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意見과 對應方案을 積極 開陳함으로써 관련 議題討論에 參與했으며, 특히 鄭琛鎭 首席代表는 미리 준비된 基調演說을 통하여 治山綠化計劃의 成功에 이어 山地資源化計劃을 作成하게된 背景과 內容에 對하여 要約說明함으로써 各國代表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핀란드 林業을 둘러본 印象을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平地林業이요, 機械林業이요, 經濟林業이요, 民營林業이요, 加工輸出林業이라 할 것이다. 全國土가 구주적송, 독일가문비, 자작나무로 구성된 울창한 수풀로 된 나라이며, 나머지는 湖水로 보이는 나라다. 핀란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쏘련이나 스웨덴등 外勢에 시달려온 탓인지 그 表情이 어딘지 근심스럽고 비사교적인 듯이 보이지만 그 內面的인 마음의 강인함이 대단한 것 같았으며, 이러한 국민성이 임업경영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듯이 보였다. 木材生産에 있어서 단위면적당 보다 質 좋고 보다 많은 나무를, 1 MARKKAA (핀란드 화폐단위) 라도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제재목, 팔프, 종이, 하-드 보-드 등을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국민경제에서 林業이 主宗產業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비록 自然的 社會經濟的 與件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핀란드의 林業을 배울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 버드나무類 種子 날림 방지법 開花期에 藥 뿌려 結實 못하게

- 눈병 및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 걱정 해소 -

林業研究院 金 綜 元

## 1. 序 論

포플러와 현사시는 生長이 빠르고, 低溫地에서 잘되며, 材質도 연하고 좋아서 河川邊이나 山麓部에 많이 植栽될 뿐만아니라, 樹形이 좋아서 버드나무와 함께 街路樹, 造景樹로 많이 植栽되고 있다.

그러나 每年 5月上·中旬이 되면 冠毛가 달린 種子가 飛散하여 눈병·피부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한곳에 많은 量이 모이게 되면 引火力이 強하여 火災의 危險性도 있다.

이와같은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本 研究院에서는 開花期에 殺蟲劑인 디프텍스水和劑 600 倍液을 撒布한 바 效果가 있었으므로 이를 弘報하여 都市周邊 및 人家周邊의 造林木에 撒布하여 種子飛散으로 發生하는 피부염의 豫防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2. 種子飛散 防止法

### 가. 開花結實 生理

포플러類와 버드나무類는 꽃이 먼저피고 잎이 피는데 種類와 地域에 따라 差異는 있으나, 南部地方에서는 3月下旬에, 中部地方은 4月上旬에 開花하여 5月上旬부터 5月末까지 種子가 飛散한다.

### 나. 種子飛散 防止法

#### (1) 供試藥劑

都市周邊 또는 人家周邊에 많이 植栽되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樹種은 현사시, 이태리포플러, 능수버들 등으로 이들 포플러類와 버드나무類는 암나무, 숫나무 區分없이 植栽되어 大喬木이 된것은 점차 他樹種으로 交替하여 植栽하고 있으나, 景觀上 부득이 現狀態대로 存置시켜야할 나무는 開花結實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實情이다.

開花結實을 억제하는 藥劑로는 사과·배 등 果樹에서 摘果劑로서 호르몬劑인 DN 아세테이트, NAA 등이 活用되고 있으며, 殺蟲菌劑인 石灰硫黃合劑, 세빈수화제, 디프수화제, 수미치온유제 등도 摘果效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本試驗에서는 비교적 값이싸고 구하기 쉬운 디프수화제와 세빈수화제를 供試藥劑로 사용하였다.

## (2) 撒布方法 및 落果率

세빈수화제와 디프수화제를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個年間 開花時期인 4月 10 頃에, 600倍, 1,000倍, 1,500倍, 2,000倍로 희석하여 현사시나무에 분무기로 撒布한 結果,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프수화제 600倍 撒布區에서는 90%가 結實되기 전에 落果하여, 種子飛散을 防止할 수 있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지역과 해에 따라 포플러類 및 버드나무類의 開花時期가 다르므로 항상 관찰하여 암꽃이 만개했을 때를 찾아서 뿌려야 한다. 만약 開花期調査가 어려울 때는 서울지방의 경우 4月 1일부터 4月 10日 사이에 2回 정도 뿌리면 거의 100%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表>

藥劑別·撒布 濃度別 落果率

藥 種	落 果 率 (%)			
	600 倍液	1,000 倍液	1,500 倍液	2,000 倍液
디 프 수 화 제	90	60	30	30
세 빈 수 화 제	70	50	40	40

※ 디프수화제 600倍液 撒布區의 效果가 가장 좋았음.

## 3. 結 論

포플러類와 버드나무類의 恒久的인 種子飛散을 豫防하기 爲하여는 솟나무만 押木養苗하여, 植栽하는 것이 가장 安全한 方法이나 기왕에 심어진 나무를 일시에 全量을 교체植栽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植栽地에 따라서는 周圍의 景觀上 不得已 存置시켜야 할 나무는 디프수화제 600倍液을 開花時期인 3月下旬부터 4月上旬 사이에 樹種別로 滿開期를 찾아서 암나무에만 1週隔으로 1-2回 撒布하면 5月中旬에 被害發生이 가장 큰 알레르기性 皮膚염의 發生原因이 되는 포플러類의 種子飛散을 막을 수 있을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本 試驗은 1987年代 1988年에 현사시나무를 對象으로 실시한 結果이므로 樹種別·地域別 開花期에 對하여는 계속 調査하여 活用하면 더 좋은 效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 期待된다.

양담배 피우지 맙시다

양담배 수입업체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자

## 林業界消息

- 林友會 事務室 마련 移徒 : 林友會는 東大門區 답십리동 961-2 松和빌딩 401號에 自体 事務室을 마련하고 지난 5.24 移轉 TEL. 243-2205
- 林友會 定期總會 : 林友會는 6.17 (金) 11:00 에 새로운 會館에서 第5回 定期總會를 갖고 現 會長團과 任員들을 그대로 留任키로 決定
- 盧健一新任 山林廳長은 : 지난 6.8 相見禮를 겸한 諮問委員會議를 開催한데 이어 6.10 일에는 傘下團體長 懇談會를 開催
- 山林組合法 改正을 위한 公聽會 : 山聯 中央會는 지난 6.10 江南 반도 유스호스텔에서 山林組合法改正을 위한 公聽會를 갖임
- 石材 關聯 討論會 : 山林廳은 6.23 世宗文化會館에서 石材業務와 關聯한 討論會 開催 예정
- 민병도氏 模範篤林家로 : 山林廳은 敬춘관광개발(주) 대표 민병도(경기, 여주) 씨에게 88. 7. 9 일자로 模範篤林家 인정서를 교부
- 洪長老, 황정호氏 停年退任 : 東部營林署長 홍장로氏와 南部營林署 蔚珍 出張所長 황정호氏가 6月 下旬頃에 정년退任 예정

### < 會員은 꼭 보세요 >

- 國內 林業先進地 視察計劃 延期 : 本報 지난號 (第27號)에 公示한 바 있는 6.23-24 에 걸쳐 實施豫定이었던 國內 林業 先進地 視察 및 任員會議 開催計劃은 事情에 의하여 8.4-5로 부득이 연기 하였으나 參加希望 會員은 7.15일까지 本會로 申請하시기 바라며 現地에서 任員(理事 등) 會議도 아울러 開催 豫定이오니 任員 諸位께서도 꼭 參與토록 申請 바랍니다.
- 海外 林業 視察計劃은 當初計劃대로 : 10月 下旬頃에 당초 계획대로 推進中이오니 本報 前號 (第27號)를 參照하시어 7.10까지 申請바랍니다.

### < 協會費 納入案内 >

- |      |                             |
|------|-----------------------------|
| 計座番號 | ○ 조 흥 은 행 : 397-1-002092    |
|      | ○ 서울신탁은행 : 19501-84009872   |
|      | ○ 농 협 중 앙 회 : 001-01-025926 |
|      | ○ 국 민 은 행 : 093-24-0025-624 |
|      |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 |